

한국,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됐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2008년 한미 소고기 협상이 타결되며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지 13년 만이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소고기는 총 21억7000만 달러어치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으로 수출된 미국산 소고기는 21억6000만 달러어치로 한국보다 1000만 달러 적었다. 12월 수출 기록이 반영되지 않아 연간 순위는 달라질 수도 있다.

2020년까지만 해도 금액 기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1~11월) 일본과 한국은 각각 17억7000만 달러, 15억9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왔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물량 역시 2020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월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소고기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25만 8552t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간의 수출량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미 2019년 기록한 역대 연간 최대치 기록



▲ 사진=Shutterstock.com

을 능가한 것이다.

냉동육을 위주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던 한국은 1997년부터 냉장육 수입을 본격화했다. 그러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미국산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미국산 소고기는 2017년부터 한국 내 수입 소고기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한국 '여권의 힘' 순위가 세계 2위라는 발표가 나왔다.

12일 '연합뉴스'가 CNN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전일 발표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 사진=shutterstock

공동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두 나라 국민은 전세계 192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독일에 이어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이었다. 북한은 39곳에 그쳐 104위를 기록했다. 북한 뒤로는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7개 국밖에 없었다.

이 순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속령 227곳 가운데 특정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화한 것이다.

도착비자란 입국장에 도착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발급 절차가 간편하다.

현재 한국 관용 여권으로 이런 도착·전자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지역은 아시아 20곳, 미주 34곳, 유럽 54곳, 태평양·대서양 등 섬 지역 14곳, 아프리카·중동 27곳으로 총 149곳이다.

1인 가구 위한 소형 주택 건설 증가



▲ 사진=shutterstock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주택 거래가 늘고 청약 시장에서 관심 끌고 있다. 가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세대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소형 주택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12일 '한국경제'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46만1695가구로, 2017년(772만5203가구)에 비해 173만6492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증가분(184만444가구)의 94.4%에 해당하는 수치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40.3%로 처음 40%를 넘었다. 2017년 35.7%에서 2018년 36.7%, 2019년 37.8%, 2020년 3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면서 소형 주택 매매도 증가세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 거래 규모(11만9686건) 중 소형 주택은 5만5910건으로 46.7%를 차지했다. 매매 거래비율도 2017년 36.1%에서 2019년 42.4% 등으로 상승해왔다.

소형주택은 청약 때 가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당첨 평균 청약가점은 52.4점(만점 8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51~60㎡는 48.6점, 전용 50㎡ 이하 주택은 46.03점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인 가구 등을 겨냥한 소형 주택 공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역 인접 지역, 부산 동래구 지역 등에서 1인 가구를 잡기 위한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